

2018년 4월 9일 [제 26호]

USKI

Washington Review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중국 변수

목 차

- I. 중국의 '차이나 패싱' 우려
- II. 김정은의 '중국 구상'
- III. 중국의 전략적 계산
- IV. 한중·미중 협력 전망

김연호 선임연구원 (Yonho Kim, Senior Researcher)



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USKI

Editor's Note

김정은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으로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치 구도에 중대 변화가 생겼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면서 중국 변수가 상대적으로 약화돼 '차이나 패싱'이란 용어까지 등장했으나, 북중 정상회담은 이러한 인식을 일거에 바꿔 놓았다. 북핵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결코 중국을 배제할 수 없음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각인시킨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당면한 전략적 고민과 선택은 무엇인지, 김정은의 동북아 구상에서 중국 변수는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미중관계 속에서 과연 중국이 미국과 적극적인 대북 협력에 나설지도 관심사이다.

「USKI Washington Review」는 4월 4일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USKI)에서 워싱턴의 명망있는 한반도 및 중국 전문가 4명을 초청해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중국 변수'를 주제로 1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솔직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좌담회 내용은 익명으로 정리했다. ([영어 원문 보기](#))

*참석자

- (1) [보니 글레이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담당 선임고문
- (2) [존 메릴](#), USKI 초빙연구원
(前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 실장)
- (3) [왕권성](#),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지역전략과 교수, 아틀랜틱 카운슬 초빙연구위원
- (4) [김홍규](#), 조지타운대학 방문교수
(前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사회: 김연호, USKI 선임연구원 & 「USKI Washington Review」 편집인

*정리: 김주영, 김보경

1. 중국의 '차이나 패싱' 우려

시 주석, 북미 정상회담 결정에 자극받아

북중 정상회담 문턱 낮추고 서둘러 김정은 만나

북미 정상회담 발표의 직접적인 결과로 북중 정상회담이 서둘러 성사된 것 아냐는 질문과 관련해, 대부분 토론자들이 중국 내에서 '차이나 패싱' 우려가 있었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이런 우려가 고위급에서 제기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한 토론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북미회담 결정 이후 시진핑 국가주석이 김정은에게 손을 내밀어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중국의 국가이익을 보호·증진한다는 측면에서 필수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토론자는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해 중국의 개입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국 내 많은 학자들과 일반 여론의 시각이었다고 말했다.

한 토론자는 중국이 악화된 북중관계를 우려

해 왔으며 지난 해 말 이후 수차례 북측과의 접촉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의 지속적인 고위관리 상호 방문 요청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러다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북중 간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됐다는 게 이 토론자의 추측이다. 중국이 처음부터 정상회담을 의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또 다른 토론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결정에 자극받은 시 주석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개최의 문턱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으로부터 일종의 재확신이 필요했던 김정은은 이를 북중관계 개선의 기회로 여겨 중국 측에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중국이 이를 수용했다는 분석이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중국이 북중관계에 대해 여전히 자신감과 영향력을 갖고 있었



좌측부터 김홍규, 존 메릴, 김연호, 보니 글레이저, 왕권성

던 것 같기는 하지만,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급하게 성사됐다는 점에 대해 토론자들 간의 이견은 별로 없었다.

한 토론자는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거치면서 권력을 공고화한 시 주석이 외교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택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북중 정상회담을 평가했다. 이 시점에서 중국이 배제된 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지형이 바뀐다는 것은 시 주석이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토론자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트럼프 대통

령의 중국 견제와 남북한의 남북미 정상회담 추진 움직임이 시 주석에게 경종을 울렸다고 분석했다. 그 이전까지 시 주석은 미중관계 개선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라는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전자를 택했으나,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변수들이 등장하면서 마음을 바꾸게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중 정상회담은 어떠한 회담도 중국을 배제하고는 성공하거나 생산적일 수 없다는 시 주석의 강력한 메시지였으며, 이는 한국과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게 이 토론자의 분석이다.

2. 김정은의 ‘중국 구상’

북중, ‘안전보장-비핵화 약속’ 주고받은듯

김정은의 ‘큰 구상’, 북미 평화공존과 경제발전

한 토론자는 김정은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흔치 않은 기회로 여기고 매우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두 정상회담은 김정은이 오래동안 갈구했던 국제적 정통성을 그에게 부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토론자는 이번에는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진정성이 엿보인다고, 그가 미국과의 평화공존과 북한 경제발전이라는 ‘큰 구상’을 위해 기왕의 비우호적인 대중 정책에서 벗어나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더해 김정은은 시주석에게 공손한 표현을 써가며 북한이 중국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모습까지 보였다는 것이다. 이 토론자는 북한이 중국 측에 안전보장을 요청했음이 분명하며, 그 대가로 시 주석이 김정은에게 비핵화 약속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시 주석은 북중 두 나라가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김정은에게 기회를 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토론자는 북중 정상회담 이후 어떠한 북한 공식매체도 ‘비핵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진정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또한 대부분 토론자들은 비핵화가 핵탄두와 관련



보니 클레이저

생산시설 폐기 등을 포함해 최대 10여년이 걸릴 수 있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는 데 동의했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토론자는 김정은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비핵화의 전제조건들이 매우 모호하고 기한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은이 언급한 이른바 ‘단계적·동시적’ 조치들은 협상 초기 대북제재 완화라는 북한의 협상 목표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 토론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의) ‘행동 대 행동’ 원칙의 실패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합의된 모든 행동을 한꺼번에 이행하는 ‘이란 모델’을 채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북미 정상회담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토론자는 김정은도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날 경우 그 결과가 얼마나 위험할지 이해하고 있는 만큼 중국으로부터 일종의 보험이 필요했다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김정은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가 의도하는 바는 과거 김일성이 냉전시기에 그랬듯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줄타기라는 것이다.

3. 중국의 전략적 계산

중국, 군 구조조정 통해 대북 개입 용의 신호 보내

북한, 중국의 핵우산 원치 않아

토론자들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경제적 영향력과 군사력이라는 두 가지 레버리지를 통해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북한은 대외무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대북 제재에서 이미 그 영향력이 증명됐다. 군사적 측면과 관련해 한 토론자는 중국이 이미 군의 구조조정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할 뜻이 있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경제제재와 안전보장에 기초한 중국의 대북 레버리지는 분명하며 중국의 한반도 전략의 핵심이다.

또 다른 토론자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과의 확실한 소통채널 유지가 긴요하다며, 이를 통해 중국은 미국과 북한 양측 모두 혹은 어느 한 쪽과 협력하면서 중국이 원치 않는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홍규

이에 대해 다른 토론자들은 북한이 안전보장을 받고자 하는 상대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반박했다. 북한을 파괴할 의도와 능력을 동시에 갖춘 나라는 미국 뿐이기 때문이다. 한 토론자는 북한이 중국의 핵우산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른 토론자는 안전보장에는 군사적 보호와 불개입 두 가지 약속이 있다며, 북한이 중국을 신뢰하지 않더라도 대북 안전보장은 다자적 형태가 돼야 하고 여기에는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도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 토론자는 시 주석이 (물론 대북제재는 계속 이행하겠지만) 김정은에게 직접 호의적인 관계를 보장했을 것이라며, 미국의 북한 침공에 중국이 반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북한 측의 두려움을 완화해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4. 한중·미중 협력 전망

미중, 갈등 완화 위해 대북협력에 적극 나설듯

한중, 대북협력 소통·신뢰 수준 낮아

중국의 입장에서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은 (비핵화) 대원칙에 대한 합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움직임, 궁극적 목표로서 6자회담 재개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재개가 될 것이다. 이를 주장한 토론자는 중국이 6자회담 개최국의 역할을 다시 맡고 싶다는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비핵화 논의를 주도하고 유리한 협상 지위를 선점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군사타격 옵션과 군사적 압박으로 선화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기 때문에 외교협상을 분명히 선호하고 있다고 이 토론자는 덧붙였다. 또 다른 토론자는 이에 동의하면서도 현재 미국무부에 진지한 대북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충분히 있는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중간급 관리들이 부재하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에서 신속한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역설 역시 배재할 수 없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모델 등에 대해 미국보다 한국과 더 협력할 가능성과 관련해, 한 토론자는 중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필수적이라고



양준성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중 협력을 위한 상호 신뢰와 소통 수준이 높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에 대해 한 토론자는 대북협상의 출발점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중 협력 전망과 관련해, 한 토론자는 미국이 북한을 활용해 대중 봉쇄라는 궁극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우려가 중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토론자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북중 관계를 최악으로 몰고가 결국 중국에 대항하는 북미동맹을 형성할 것이라는 추측이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토론자는 중국 학자들의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고 구체적인 논거도 없으며, 미국이 그동안 보여준 어떠한 행동에서도 이같은 의도를 읽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미중관계 악화와 관련해, 한 토론자는 무역 마찰과 대북 협력 의지 간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이 토론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미중 무역마찰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북한 문제에 관한 협력할 동기가 더 강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중국은 무역마찰과 기타 미중 현안들이 어떻게 전개되든,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은 결코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또한 중국으로서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미중, 북중 관계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토론자들은 입을 모았다.



좌측부터 김연호, 보니 글레이저, 왕준성